그 사람 지금은

(22) 신순범 前국회의원 〈상〉

"200원짜리 라면 팔며 국회의원 꿈 키웠죠"

"1981년 3월 국회의원 당선 소식을 듣고, 또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 통지서를 받아 들고 머릿 속은 온통 어머니에 대한 생각 뿐이었습니다. 1978년 두 번의 낙선으로 도시 한 구석에서 괴로워하며 발버둥거릴 때 어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조차 못 지켜 죄스러운 아들. 어머니의 부고를 받고도 울지 못했던 아들. 당신은 임종 직전 5천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밀며 '순범이 오거든 이 돈을 꼭 줘라'고 했답니다"

여수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순범 전 국회의원의 26년전 회고다. 신 전 의원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기로 유명하다. 라면장수 출신이 국회의원을, 그것도 4선이나 한 것만으로도 그는 유명세를 타기에 충분했다. 물론 여기에 이르기까지 노력 과정은 더욱 더 그를 대단하게 보이게 한다.

신 전 의원은 1933년 여수시(당시 여천군) 화양면에서 빈농의 4남4녀 중 7번째로 태어났다.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마치고 비단공장에서 3년 동안 일한 돈을 모아 여수고교에 2학년에 편입, 23살 때야 졸업장을 받았다.

신순범 전 국회의원(가운데)이 제11대 총선에서 당선된 1981년 3월26일 여수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약 력

▲1933년 여수시(여천군) 화양면 장수리 출생
▲여수고, 동국대 졸업
▲11~14대 국회의원(4선)
▲평민당 사무총장, 민주당 부총재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재)만광장학회 이사장

1956년 신익희 선생 서거 때 즉석 군중연설로 정치에 첫 관심

"고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진학이 어려워 무작정 부산 형님댁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형님 도움으로 동아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정착에 필요한 생활도구와 책을 가져오기 위해 여수로 돌아온 다음날인 1956년 5월5일, 제 삶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날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서거한 날이다. 그는 그날 민주당 사무소가 있던 여수시 중앙동 로터리의 수많은 인파 속에 있었다. 그리고 신 전 의원은 사라진 희망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던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당사 앞에 세워진 지프 보닛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즉설 연설을 했다.

"해공 선생을 잊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설 후 당시 여수 출신 정재완 국회의원과 여수가 낳은 거물 정치인 종산 김우평 선생이 계시는 민주당 사무실에 올라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 때 종산 선생이 '장면 부통령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선거 후 부산으로 갔으나 1학기 시험이 끝날 무렵 종산으로부터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갔다. 그리고 동국대 부총장을 소개받아 장학금을 받고 편입학했다. 물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신문배달과 무좀약 방문 판매 등을 해야 했다.

신 전 의원은 이 때 이미 국회의원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설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고사성어와 명언, 위인들의 연설문은 무조건 암기했다. 때문에 그는 전국남녀웅변대회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선거구인 여수에서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통반장·이장·청년회장·부회장 등 유지 1만여명의 명단을 확보, 매년 연하장을 10년 이상 발송했다. 생일 5일전에에는 축하엽서를 보내기도 했다.

신 전 의원은 이런 정성을 믿고 1971년 8대 총선에서 신민당 공천을 받으려했으나 두터운 벽 때문에 포기했다. 그리고 1973년 9대와 1979년 10대 총선에 잇달아 무소속 출마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1979년 4월 선거를 위해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850만원에 가등기해주고 빚을 얻어 썼다가 길거리로 나앉았다. 당시 충정로 3가 복덕방 주인들의 도움으로 용케 방 한칸은 구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다. 신 전 의원 부부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서대문 마동초등학교 건너편 노라노예식장 차고에서 라면가게를 하기로 했다.

"당시 주변에는 재수학원이 많아 학원생을 상대로 장사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보증금 80만원에 월세 10만원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끌어들여 100만원짜리 계를 조직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도와준 것이지요"

신 전 의원은 그렇게 4평 남짓한 라면가게 '늘봄분식'을 차렸다. 그는 200원짜리 라면을 팔면서도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기초가 부족하다고 받아주지 않던 영어학원을 찾아가 학원생들의 온갖 눈총을 받으며 영어공부를 했다.

"신순범은 영어로 연설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차별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8개월 만에 코리아헤럴드 주최 영어웅변대회에 나기기로 하고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발음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녹음한 뒤 1천200번 반복해 들었지요. 그래서 특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1981년 3월 11대 총선이 왔다. 10·26 사태로 3년이나 선거가 앞당겨진 것이다. 이때 그는 여수·여천·광양지구(중대선거구제)에 이름도 없던 안민당 공천을 받아 법정선거비용의 10분의1도 안 되는 450만원의 선거자금으로 여당후보를 7천600여표 차로 앞지르고 1위로 당선됐다.

美 선교사 녹음테이프 1,200번 듣고 영어웅변대회 특상 받아낸 노력파

"안민당을 택한 것은 정당 소속이면 700만원의 공탁금만 내면 됐지만 무소속은 1천50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00만원 중 절반은 누나에게 빌려서, 나머지는 친지·친구·선후배가 총동원된 모금운동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라면가게는 아는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부부가 여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선거기간 동안 ▲매일 4시 기상, 밤 2시 이후 취침 ▲하루 500리 돌기 ▲하루 2천명 이상과 악수 등 목표를 정해놓고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여수시의 합동연설회 때 고향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기 위해 2년 이상 걸려 외워온 여수지역 265개의 섬과 마을 이름, 어촌의 어선 수를 암기해 연설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드디어 국회에 등원했고 제2의 인생을 살게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무진도독고성

現 광주 누문동·임동 일대 둘레는 광주읍성 4배 달해

광주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옛터를 아직 찾지 못한 곳이 많다. 그 중 고읍(古邑), 생압도(生鴨渡)와 함께 무진도독고성(武珍都督古城)이 숨어 있다.

백제 때 무진주도독은 신라 경덕왕 때 무주(武州)도독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무진도독 때 옛 토성(土城)은 둘레가 2천560보(步)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무진도독고성은 현의 북쪽 5리에 있고, 흙으로 쌓았으며, 주위가 3만2천448척이다.

무진도독고성은 지도상으로는 1682년께 동여비고에 처음 나타난다. 십신사(十信寺) 바로 서편에 무진도독고성이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술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렸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십신사가 현 북쪽 5리 평지에 있고, 범어(梵語)로 쓴 비가 있다는 기록을 주목하면 짐작이 간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보면 무진도독고성은 둘레만 보아도 광주읍성의 4배다. 그 터는 누문동과 임동 일대로 추정된다. 고읍(古邑)은 무진도독고성이었을 개연성이 있다.

고읍에 관한 기록은 대동여지도와 동여도만 있다. 고산자(古山子)는 읍성 북쪽 냇가 건너편에 지도표와 함께 '고읍'을 표기했다. 아직도 그 터에 대한 유흔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향토사단 일대로 보는 설이 있을 뿐이다.

1682년 제작된 동여비고에 표기된 무진도독고성.

1995년부터 무진도독고성터에 대한 발굴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전남대학교 임영진 교수는 금남로를 따라 조사된 우물지와 누문동 광주일고 운동장에서 통일신라 건물지를 찾았다.

2002년 광주읍성유허 지표조사보고서를 통해서는 광주시가지의 격자 가로망에 근거를 마련했다. 통일신라는 당(唐)나라 정전제(井田制) 도로망을 따랐다. 광주 가로망이 격자형인 것은 무진도독성과 관련될 수 있고, 조선시대 읍성은 그 도로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광우 교수도 무진도독성의 160m 격자 시가지 일부에 석성을 쌓은 것이 광주읍성이라고 했다.

백제 때 무등산에 성을 쌓고 백성들이 믿고 평안히 살면서 무등산곡(無等山曲)을 불렀다고 한다.

고산자의 대동지지 성지편에는 무등산 고성이라는 백제 때 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1926년 일본인이 쓴 광주군사에는 척현성지(尺峴城趾)가 나온다. 읍성이 아니고, 산성일 것으로 보고, 고려 건국 또는 그 이전에 축조한 것으로 보았다.

1989년 잣고개 일대 성터를 조사한 뒤, '무진고성'이라는 두 권의 보고서가 출간됐다.

지금까지도 이 성터의 성격이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도독골'이라는 땅이름이 남아 있다. 생룡동 뒷산에는 우치산성(牛峙山城)으로 여겨지는 토성 흔적이 보인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

▲고침 : 2월10일자 장수향교 편 본문 16째줄 '나주향교와 같은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다'를 '나주향교는 전묘후학(前廟後學) 배치다'로 바로잡습니다.